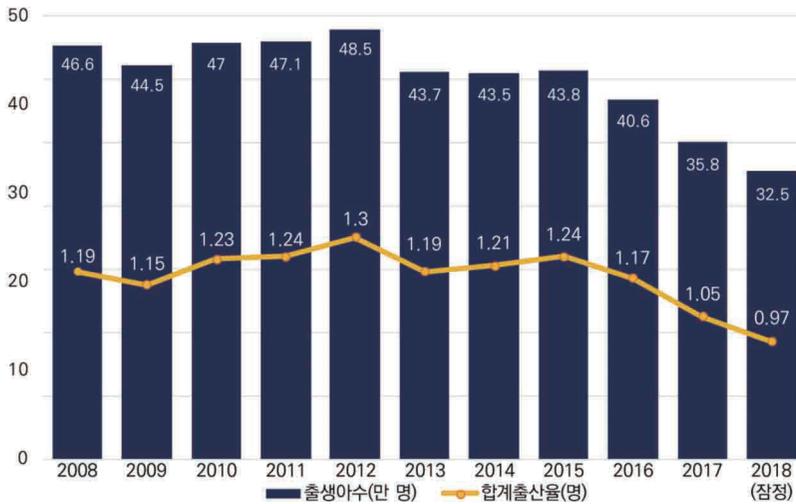




## 1. 한국의 출산율 동향과 정책 방향

- 저출산 문제는 2005년 참여정부 때 처음 주요 국정아젠다로 채택됨
- 당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8, 출생아 수는 44만명으로 역대 최저였으며, 국정아젠다로 채택되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정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2018년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라는 극단적인 수치를 기록<sup>1)</sup>하며 초저출산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됨

| 그림 1 | 한국의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2008~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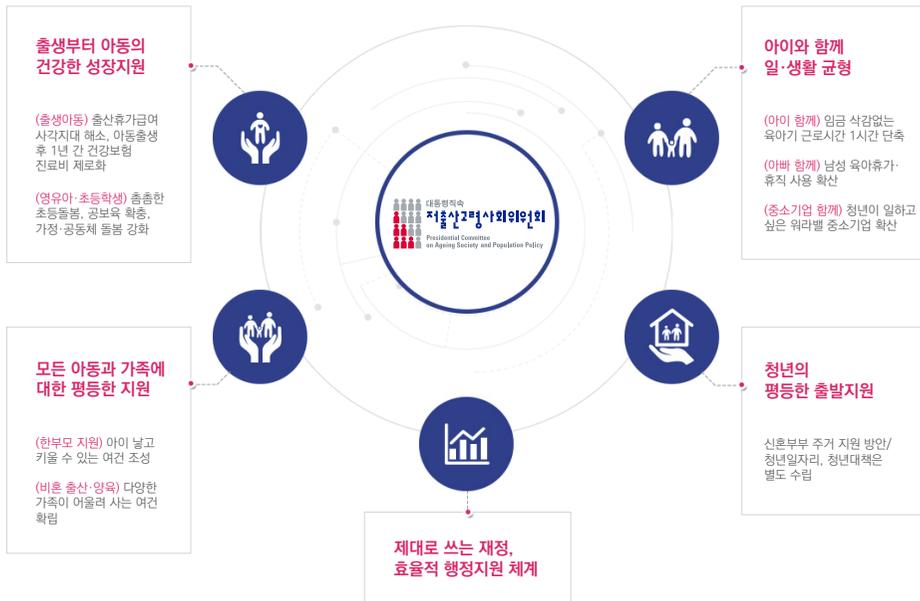


-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과 관련된 양적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기존의 저출산정책으로는 출산과 육아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결론과 함께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개인의 출산’에 대해 국가가 강요하는 방식의 접근은 시대착오적이기에 저출산 담론과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도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이를 반영한 저출산 대책(그림 2 참조)<sup>2)</sup>을 발표함

1) 김수정(2019). 저출산·고령화 시대 한국의 인구 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22권 2호 p.143~158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betterfuture.go.kr>

## | 그림 2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5대 정책과제



- 출산율과 출생아 수 증가를 목표로 했던 기존의 국가주도 출산정책에서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방향을 바꾼 것은 크게 환영할만한 변화임
- 이에 국가주도적 출산정책의 변화를 기준으로 광주광역시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정책을 살펴 보고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함

## 2. 광주광역시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책 현황(2019년 9월 기준)<sup>3)</sup>

### 임신지원 정책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및 일부분인부담금 지원
-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시술당 최대 20만원), 배아동결·보관(시술 당 1년 기준 최대 30만

3) 정책 현황은 정부24, 광주광역시,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였음

원) 지원이 신설됨

- 1회당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최외수정(신선배아4회, 동결배아3회), 인공수정 3회 지원

■ 임신·난임·출산·육아 상담서비스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에서 온라인상담

- 심리상담은 전화 1644-7382에서 제공함

■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 임신·출산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임신 1회당 60만원(다태아 임신부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

- 기존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가능하던 것을 2019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1세 미만의 아동진료비 사용가능)까지 사용가능토록 확대·변경함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 만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지원(임신 1회당 120만원)

■ 임신부 건강관리지원(보건수첩, 철분제, 엽산제)

- 임신부·영유아의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자보건수첩 배부

-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임신 5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철분제 지원

- 35세 이상 임신부 임신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 중 5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으로 진단, 입원치료 받은 고위험 임신부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 1인당 300만원 한도 내 지원

■ 장애인 임신부 건강관리지원(산전검진비, 산후 건강관리)

-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광주광역시 거주 장애인 임신부의 산전검진비(50만원 초과분, 한도액 내 지원), 산후 건강관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액 외 본인 부담금 일부 지원)

## 출산지원 정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 산후관리 도우미

- 파견, 산모 영양관리, 산후체조, 좌욕, 세탁물 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지원
- 예외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 둘째아이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산모(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미혼모산모 지원

■ 출산용품 마더박스 지원

- 2019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모든 가정에 출생아 1명당 5만원 상당 지역화폐(광주 상생카드) 지급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1~6급 여성장애인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지원

■ 입양축하금

- 광주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 100만원(장애아동의 경우 200만원) 지원

■ 출산축하금

-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 출생신고한 세대(거주기간 관계없음)
-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60만원(추가지원:쌍둥이 50만원, 세쌍둥이 100만원, 남성장애인 1~2급, 3급 중복장애인 100만원 그 외 3급 장애인 50만원)
- 자치구별 출산지원금(광주광역시와 자치구 중복지원)

표 1 |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출산지원금

구분	지원내용	지원자격
광산구	- 셋째아: 45만원 - 넷째아: 100만원 - 다섯째아: 300만원	부모 중 1인이 아이 출생일 전 1년 이상 광산구 거주
남구	- 둘째아: 10만원 - 셋째아: 20만원 - 넷째아: 50만원 - 다섯째아 이상 : 100만원	부모 중 1인이 아이 출생일 전 6개월 이상 남구 거주
동구	- 셋째아 이상: 10만원	부모 중 1인이 아이 출생 신고일 현재 동구 거주(거주기간 관계없음)
북구	- 셋째아 이상: 10만원	부모 중 1인이 아이 출생일 전 6개월 이상 북구 거주
서구	- 셋째아 이상: 20만원	부모 중 1인이 아이 출생일 전 3개월 이상 서구 거주

2019년 10월 기준

■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 1인 포함 가구의 해당 월 전기요금 30% 할인

**양육지원 정책**

■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 선천성 대상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조기 진단 등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만2세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족을 대상으로 기저귀 구매 비용(월6만4천원)과 조제분유 구매비용(월8만6천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함

■ 영양플러스 사업

- 기준중위소득 80%미만의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양위험 요인을 가진 영유아(만6세미만)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식품패키지 제공

■ 영유아 건강검진

-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7회), 구강검진(3회) 지원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 접종별 대상 인구(만0~12세)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

■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함

| 표 2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구분	종일반	맞춤반
만 0세	454,000원	354,000원
만 1세	400,000원	311,000원
만 2세	331,000원	258,000원
만 3~5세	220,000원	

■ 보육료 지원(유치원)

-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함

표 3 | 유치원 보육료 지원

구분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만 3~5세	60,000원	220,000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종일)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현금 지원(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24개월 이상 취학 전 10만원)함

■ 시간제보육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6개월~36개월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당 본인부담 1,000원의 이용료(시간당 4,000원=정부부담3,000원+본인부담1,000원)로 원하는 시간만큼 보육을 제공함
- 보육시설 이용하는 아동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가능
- 이용 하루전날까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신청예약

■ 광주 긴급아이돌봄센터(야간 시간제보육)

-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녀(6개월~만5세 아동)를 둔 부모가 24시간 긴급보육이 필요할 때 시간단위로 이용하고 이용시간만큼 보육료(시간당 3,000원)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 2019년 8월 개소, 광주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실
- 이용 하루전날까지 '광주긴급아이돌봄센터'에서 신청예약

■ 아동수당지원

-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6세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 지급함.
- (2019년 9월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7세미만 모든 아동으로 대상이 확대됨

■ 아이돌봄 서비스

- 생후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의 가정방문 돌봄 지원 서비스
- 시간제와 종일제 중 선택 가능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지원함

■ 손자녀 돌보미 지원

- 쌍둥이 또는 세자녀 이상인 손자녀가정 중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70세 이하 조부모를 대상으로 손자녀돌보미 교육 및 수당 지급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을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25만원, 초등학교 2년 이하 취학아동 및 보육시설 이용아동을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10만원 지급

■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조)부모 및 자녀를 대상으로 돌봄 품앗이(등하교, 체험 활동, 놀이, 학습) 연계, 육아정보 공유 등을 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취학 전 모든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센터 내 도서·장난감 대여,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육아상담 및 교육 부모 간 육아 정보 교류 등을 지원

■ **같이돌봄가게 운영**

- 예비출산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육아용품(보행기, 유모차, 카시트, 의류, 도서, 장난감 등) 기부 및 공유, 14인 이내 출산·육아관련 소모임시 공간(광주도시철도 공사 지하1층)대여

■ **행복한 다자녀가정 지원**

- 둘째아 이상 병원비 지원,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세자녀 이상 다자녀 우대 아이사랑카드, 세자녀 이상 전기료 감면, 세자녀 이상 도시가스요금 감면,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차액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다자녀가구 자녀세제지원, 세자녀 이상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세자녀 이상 광주광역시 공용차량 공유서비스, 세자녀 이상 국가장학금(다자녀국가장학금), 다자녀가구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지원 등

| 표 4 | 임신·출산·양육지원정책 현황(2019년 10월 기준)

구분	내용	비고
임신지원정책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임신·난임·출산육아 상담서비스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임신부 건강관리지원(보건수첩, 철분제, 엽산제)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장애인 임신부 건강관리지원(산전검진비, 산후 건강관리)	광주광역시
출산지원정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출산용품 마더박스 지원	2019년 1월부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입양축하금	
	출산축하금	광주광역시+자치구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구분	내용	비고
양육지원정책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영양플러스 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시간제보육	
	광주 긴급아이돌봄센터(야간 시간제보육)	광주광역시
	아동수당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손자녀 돌보미 지원	광주광역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같이돌봄가게 운영	광주광역시	
행복한 다자녀가정 지원		

### 3. 시사점과 제언

#### 임신·출산·양육지원정책의 시사점

- 임신지원정책은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 청소년 산모, 고위험 임신부, 장애인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한 현금지원과 상담지원, 건강관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이 중 ‘장애인 임신부 건강관리 지원’, ‘손자녀 돌보미 지원’, ‘같이돌봄가게’ 등은 광주광역시에 서만 시행하는 별도의 사업임
- 최근 광주광역시는 ‘광주 긴급아이돌봄센터’를 개소함으로써 기존의 ‘시간제보육’을 확대하여 야간까지 24시간 긴급 보육이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야간 시간제보육 제도를 신설함
- 정책 대상의 다양화, 정책 내용의 다양화, 그리고 보편화의 방향은 출산율 성장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주도, 인구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하던 육아정책의 방향을 아동이 있는 가정의 건강성 혹은 삶의 질에 대한 접근으로 바꾼 것이라 할 수 있음

##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한 '마더박스'정책 재고

- 광주광역시 2019년 1월부터 '출산선물 마더박스 지원'을 실시하며 모든 가정에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광주상생카드 5만원)를 제공하고 있음
- 핀란드의 마더박스에서 착안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가장 먼저 시작한 마더박스 제도(현 제도명 '서울i해피박스')는 출산여성에게 우리 사회가 당신의 아이를 함께 키우겠다는 약속의 선물임
- 모든 출생 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출생축하용품지원사업은 '2017 함께 서울정책박람회'의 시민제안을 통해 제안된 정책 중 시민들의 높은 찬성률을 거쳐 채택되고 시의회 예산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 정책임
- 서울시는 최초 한 종류의 상자를 마련하여 육아용품을 담아 제공하다가 둘째아 출산 시 같은 상자를 중복수령하게 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세 종류를 상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음. 현재는 이를 더욱 보완하여 서울특별시 출생축하용품지원사업 공식홈페이지에서 10만포인트 한도 내에서 필요물품을 개별 선택할 수 있게 함. 또한 홈페이지 내 육아정보 게시판을 추가하여 출생가정에 도움이 되는 각종 육아정책 및 부모교육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현금지원 방식은 마더박스의 취지에 부합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으며, 기존의 출산축하금과 구분되지 못해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시행했음을 시민들이 인지하기 어려워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함
- 또한 마더박스 수령을 위해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거기에서 다른 정책과 제도를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서울시의 방식에 비해 정책효과의 연쇄작용이 일어나지 못하는 부분 또한 아쉬움

##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과정

- '출산과 보육이 행복한 광주 만들기'를 공약사항 중 하나로 채택한 민선7기가 들어서며 많은 가족관련 정책과 제도가 자리잡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광주형 출산지원 시책도입, 신혼 부부 주거부담 완화,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강화, 야간 돌봄서비스 강화 등 실천된 공약 사항들도 많이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여전히 정책과 제도의 목표나 기대효과를 출산장려, 출산율 상승 등으로 한정짓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논의가 필요함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확대 및 개편, 자치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은 중앙정부와 자치구와의 협의를 거쳐 앞으로 지켜져야 할 정책 공약임